

상담전문가 양성 본격화

불교상담개발원, 21일부터 전국 무료 기초상담교육

21세기 포교는 '상담포교'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에 불교계 상담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택)은 5월 21일부터 전국 10개 지부 15개 지회 350분회에 걸쳐 2만여명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하며 청소년 포교에 새 지평을 열었다. 하지만 창립 당시 전국 535개에 달했던 학교 및 사찰 분회가 10년 만에 350개로 줄어드는 등 조직 규모가 현저하게 축소됐다. 이에 파라미타는 올해 안에 미 설립 지부를 정비해 창립에 박차를 가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들어간다.

현재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이 미설립 지부로 남아 있는데 이 가운데 6월 경

악하고 추후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상담개발원이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회의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이 공동주최한 '이혼상담법제화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타종교에 비해 불교계 전문상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혼상담법제화' 법안이 상정돼있고, 지난해 2월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시한 이혼 전 상담제도의 성공과 더불어 전국 법

원으로 이혼상담제도가 확대운영될 추세에 있는 등 상담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뜨겁다. 또 올해 4월 28일에는 육군 제2군사령부 내에도 시범적으로 군상담위원 117명이 위촉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125명의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중 불교계 상담위원 참여현황은 12명, 수원가정법원 상담위원은 6명이다. 군상담위원 중 불교계 상담전문가는 겨우 10명. 전체의 8%에 불과한 셈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번 '기초상담교육'을 통해 불교적 소양을 지닌 상담전문인력이 보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이수 후에는 교육수료증이 발급되며 교육받은 기간은 조계종이 운영하는 '불교상담심리사' 수련과정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또 관련학과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28세 이상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갖고 있는 상담가의 경우 한국상담전문가협회 3차 교육대회 교육 참가자로 추천해준다.

5월 20-21일 대구 경북지역 상담가 50여명을 대상으로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1차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2차는 27-28일 광주 (사)자비심행회 강당에서, 3차는 6월 3-4일 부산지역(장소미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02)737-7378

이은비 기자 remy@buddhapia.com



5월9일 병실을 찾은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사진 왼쪽)이 아빠 품에 안겨 있는 카우서 아델 후림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모성애

노래 부르기와 인형을 좋아하는 카우서 아델 후림(4). 유달리 아빠와 노는 것을 좋아했던 아델은 어느 날 전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다. 바로 바그다드 폭탄 테러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카우서는 전신 화상을 입었고, 이라크 의료진들도 치료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카우서의 아버지 아델(40)은 당시를 "내 딸인지도 알아보지

5월 7일, 생면부지의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카우서와 아버지 아델을 반긴 사람은 다른 아닌 KCRP 여성위원회의 '국경을 초월한 모성애' 회원들. 그 중에서도 3개월간 카이서를 보살피게 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불교여성개발원 봉사자들이었다. 혈액 검사 등의 기본 검사를 마친 카우서는 다음 주 중으로 첫 번째 수술을 받게 되며, 3개월 간

KCRP, 이라크 어린이환자 초청 치료 불교여성개발원 봉사자 석달간 보살펴

못할 정도로 처참했고, 병원 의료진들의 부정적인 진료 결과에 또한 번 좌절했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 도울의 손길을 내민 이들이 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백도용, 이하 KCRP)다. 한국종교계의 7대 종단 연합 기구인 KCRP는 이라크에서 전쟁과 테러로 부상당한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초청 치료하는 사업을 벌였고, 단 4명에게만 주어지는 이 혜택을 카우서가 받게 된 것이다.

4차례에 걸쳐 수술이 진행됐다. 아델씨는 "의사도 절망적이라고 했던 수술을 한국에서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다"며 "딸아이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니 한국 관계자들이 말할 수 없이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9일 병실을 찾은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종교나 인종에 관계없이 어린 생명을 살리는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심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여수령 기자

“사리는 신앙 대상...제자리로”

조계종, 국립중앙박물관 불사리展 반대

국립중앙박물관이 5월 3일부터 21일까지 '불꽃속에 피어나는 승고한 정신 불사리와 장엄'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사리는 문화재가 아니며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달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5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에 공문을 보내 "불교의 상징인 사리를 전시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승고한 예배의 대상인 불사리가 전시나 보관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즉각 반환해 여법하게 봉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화재청이 조계종 현등사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3층석탑 사리함

일체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사리는 죽은자의 신체 일부이며 종교적인 신앙대상으로 사고 팔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문화활동의 소산이 문화재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여서 조계종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문화부 박종환 팀장은 "사리가 전시 유물로 취급한 것은 국가 기관에서 종교적 무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며 "문화재청의 유권해석처럼 사리구는 문화재가 될 수 있어도 사리는 신앙의 대상인 만큼 출토된 탑에 다시 봉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공직자 종교편향 법으로 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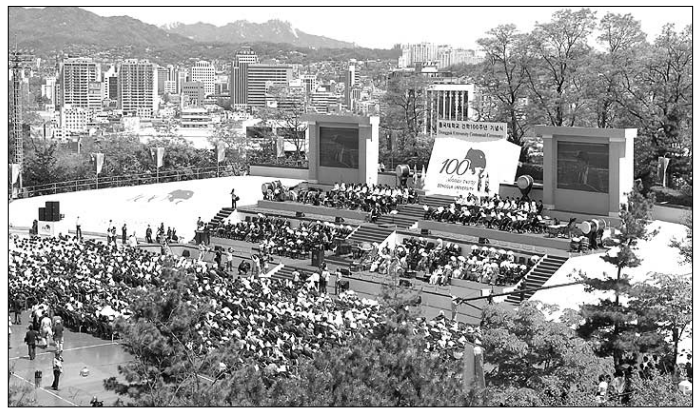
종평위, 제도마련 촉구 포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는 사회 공동체의 존립에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교분리와 사회공직자들의 종교편향에 대한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공개포럼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 주최로 5월 10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삼경 동국대 법대 교수는 "다종교를 비방하거나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로써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간 분쟁을 방지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정교분리 원칙이 엄격히 확립돼야 한다"고 밝힌 김삼경 교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



5월8일 만해광장에서 열린 동국대 건학 100주년 기념식에는 조계종 총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사진=고영택 기자

“우리 마음에 희망이 있다”

동국대 건학 100주년 기념식

“눈 밝은 선지식들의 해안은 1906년 5월 8일에 거사(學師)하여(도성(都城)의 안산(案山)인 남산골 영명(靈明)한 자리에(배움터의 당기(幢旗)를 지주(支柱) 높이 내걸고(인재의 요람인 명진학교(明進學校)를 출범시키나...”(조계종 총정 법전 스님의 기념 법어 중)

동국대 건학 100주년 기념식이 고 불종림 백양사 방장 수산·조계종 원로의원 고산·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8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거행됐다.

기념식에서 법전 스님의 기념 법어에 이어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은 "동국대하이 이처럼 한 세기라는 적지 않은 세월을 올바르게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안으로는 불교계의 근대화에 노력하고 밖으로는 민족의 자주 정신을 선양하는데 앞장섰던 여러 선배 선각자 불교인들의 희생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국대 흥기삼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자식을 아끼듯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마음속에,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마음속에, 밤새워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 마음속에,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동문들의 마음속에" 건학 100주년의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국대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국 백년비' 제막식이 정각원 앞에서 봉행됐다. 한편 기념식에서 법전 스님이 동국대 로스쿨 유치를 직접 언급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동우 기자

파라미타 10주년 지회 늘리기 박차

남자부 창립을 시작으로 인천과 강원 등이 하반기 안에 지부 창립을 목표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파라미타의 존재 의미 중 가장 큰 것은 조계종단 차원에서 청소년 포교를 위해 정기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뒷받침이 있었기에 파라미타는 현재 결코 타 청소년 동아리에 뒤떨어지지 않는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이제는 일선 학교에서 명실공히 인기 동아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착에는 어느 정도 성공 했지만 이제는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파라미타가 창립할 당시 이미 활동중이던 청소년교회연합회와 지역분회의 활동 범위가 겹치는 것도 파라미타의 위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청소년 포교 전문가들은 두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경쟁관계가 아닌 협조체제를 갖춰 타종교에 비해 조직력이 뒤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선 전략적인 계획을 함께 수립해 포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주일 기자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 불교전래 및 준공식 원만봉행

경

추

1,600여년 전의 불교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영광 법성포

백제 침류왕 원년 서기 384년 인도 고승 마라난타 존자께서 옛 백제국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최초로 당도하셨던 영광 법성포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불사를 추진하여 5월13일에 그 준공식과 불교전래재현식을 봉행하였습니다. 여러 대덕근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동참하여주시어 성황리에 원만히 봉행하게 된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만불전 원불 봉안 불사 동참 권선

백제불교최초도래지는 간다라양식으로 조성된 가람으로서, 석굴형 사면대 불과 부용루, 탑일, 간다라 유물관 등 대승불교의 본고장인 간다라 불교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가람입니다. 이곳 만불전에 지혜와 자비라는 진리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혀줄 일만의 부처님을 봉안합니다. 이 뜻 깊은 원불 봉안불사에 불자님들께서 정성과 기쁨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합장 기원합니다.

◆ 원불 봉안금 : 50만원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기념사업회
 전화 : 061)352-8097, FAX : 061)353-1909
 E-mail manndang@hanmail.net / http://www.maranantha.org
 온라인 계좌번호 : 농협 679-01-187701 [예금주 : (사)백제불교기념회]

장소: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좌우두 일원